

## 【특집】

# EU의 電機産業 시장동향 및 전망(下)

### 산업용 전기장비

#### 1. 산업 프로파일

산업용 전기장비는 비교적 상호 관계가 없는 하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내연엔진, 자동차, 기타 운송수단 및 교통관련 전기장비
- 산업용 실험실용 전기로(爐), 오븐, 기타 형태의 가열장비
- 전기용접 및 금속 절단용 장비, 기계, 재료
- 휴대용 전기 용구
- 기타 산업용 용구, 기구, 장비

산업용전기장비 분야에 포함되는 상품군이 많음에 따라 생산활동도 다수의 경쟁기업간에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특정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거나 또는 수개의 산업(예, ROBERT BOSCH(독일), PEUGEOT(프랑스), FIAT(이태리))에 특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기업도 모든 분야에 걸쳐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없다.

산업용 전기장비 산업 분야는 현재 두가지 부문 즉, 전기 공구와 용접장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양대 분야는 EU내 산업용 전기장비 총 매출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전기공구 분야에서는 드릴, 평삭반(平削盤), 원형톱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휴대용 제품들이다. 주요 수요층은 전문기업들로서 건설, 금속가공, 목재가공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며 이들이 1993년도 전기공구 분야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DIY(DO-IT-YOUR-SELF)가 나머지 60%를 차지하고 있다.

## 산업용전기장비의 대외무역 동향(경상가격기준)

(단위 : 백만 ECU)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EU역외수출	3339.0	3552.0	3533.0	3630.0	3547.0	3979.0	N/A
EU역외수입	2679.0	3076.0	3380.0	3862.0	3598.0	3876.0	N/A
무역수지	660	476	153	-232	-51	103	N/A
수출/수입비율	1.25	1.15	1.05	0.94	0.99	1.03	N/A

## 회원국별 전기공구 대외무역 현황('93)

(단위 : 백만 EUC)

구 분	B/L	DK	D	GR	E	F	IRL	I	NL	P	UK	EU
EU역외수출	4.5	1.4	314.4	0.2	10.7	21.5	1.0	50.3	9.3	0.4	79.2	492.9
EU역외수입	24.3	15.1	400.4	6.0	26.5	118.2	11.6	77.5	70.3	5.3	76.1	831.4
무역수지	-19.9	-13.7	-86.0	-5.8	-15.8	-96.8	-10.5	-27.2	-60.9	-5.0	3.0	-338.5
수출/수입비중	0.18	0.09	0.79	0.03	0.40	0.18	0.09	0.64	0.13	0.07	1.04	0.59

(주) B/L : 벨룩스, D/K : 덴마크, D : 독일, GR : 그리스, E : 스페인, F : 프랑스, IRL : 아일랜드,

I : 이태리, NL : 네덜란드, P : 포르투갈, UK : 영국

자료 : DEBA

## 회원국별 용접장비 대외무역 현황('93)

(단위 : 백만 EUC)

구 분	B/L	DK	D	GR	E	F	IRL	I	NL	P	UK	EU
EU역외수출	14.6	5.3	149.0	0.7	7.0	32.8	4.7	62.0	18.4	1.1	32.7	328.3
EU역외수입	5.1	12.6	75.1	3.6	12.8	20.9	1.0	27.3	21.1	3.7	36.9	220.3
무역수지	9.5	-7.3	73.9	-2.9	-5.8	11.9	3.7	34.7	-2.7	-2.6	-4.3	108.0
수출/수입비중	2.87	0.42	1.98	0.20	0.54	1.57	4.55	2.27	0.87	0.30	0.88	1.49

(주)상동

자료 : DEBA

## 전기공구 대외무역 동향(경상가격기준)

(단위 : 백만 EUC)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EU역외수출	398.9	442.3	452.1	440.5	431.8	492.9
EU역외수입	502.5	559.9	609.9	699.7	697.8	831.4
무역수지	-103.6	117.7	-157.8	-259.3	-266.1	-338.5
수출/수입비중	0.79	0.79	0.74	0.63	0.62	0.59

(주)상동 자료 : DEBA

## 용접장비 대외무역 동향(경상가격기준)

(단위 : 백만 EUC)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EU역외수출	394.4	333.0	314.8	371.2	285.0	328.3
EU역외수입	250.3	273.2	266.5	313.0	298.4	220.3
무역수지	144.0	59.8	48.4	58.2	13.4	108.0
수출/수입비중	1.58	1.22	1.18	1.19	0.96	1.49

자료 : DEBA(위의 통계자료 동일)

## 2. 최근 동향

EU 및 EFTA의 전기공구 판매규모는 '93년 25억 ECU로 천공기(drills)가 전체 판매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최대 소비국으로 EU전체 소비의 약40% 가량이 독일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이어,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으로 이들의 소비시장 점유비율은 모두 15% 미만에 그치고 있다.

지난 '93년 용접장비에 대한 EU의 총소비는 로봇과 환경장비를 포함하여 13억ECU에 달했다. 이 중 1/3은 아크 용접장비(arc)이며 반면에 저항용접장비(resistance welding equipment)가 30%, 기타 장비로는 환경장비, 레이저, 전자빔 기계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용접장비에 대한 EU내 총소비의 45%이상은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어 프랑스(20%), 이태리(15%) 등이 높은 소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용접장비의 주요 소비시장은 자동차시장이 압도적이며 이어서 DIY부분이다. '89-'93년간 종합적인 대역외 연간 수출증가율은 3%이나, 연도별 증가율에 있어서는 다소의 기복이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중 종합적인 대역외 연간 수입증가율은 6%로 역외 수출의 2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89년 5억ECU에 달하던 관련분야 무역흑자는 '93년에 들어 1억ECU로 급감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EU회원국간의 교역을 살펴볼 때 수출입이 각각 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EU전체수출에서 EU역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역내 교역이 역외 교역보다 최소한 40% 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3. 국제간 비교

산업용 부문의 전기장비는 중국이 아직도 소생산국이지만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보아야 한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 '93년도 기준으로 EU 전체수출의 3% 수준에 불과했으나 중국장비의 수입은 5%에 육박했다. 또한 '88-'93년 기간중 대중국 전체 수출 증가율은 불과 15%인데 비하여 수입은 같

은 기간중 97%에 이르고 있다.

EFTA국가들은 EU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으로 전체수출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수입에서 EFTA의 비중은 18%로 상대적으로 낮다. '93년 EU가 수입한 용접장비의 61%가 EFTA제품이며, 특히 스위스와 세계의 주요 제조국가인 스웨덴산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93년 EU의 산업용전자 장비 산업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즉 EU의 관련장비산업의 총수출중 12%만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반면에 대미수입은 총수입에서 무려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관련 제품에 대한 대일본 수출은 총수출의 2%인 반면에 일본의 EU수입시장 점유율은 무려 22%에 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EU기업과 강력히 경쟁하고 있는 분야는 전기공구다. 예를들면 일본제 전기공구의 EU수입 시장점유율은 17%를 차지하고 있으나 EU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일 수출은 2%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은 '88과 '93년사이 중국, 헝가리등과 같은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들의 진출 확대로 EU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 4. 대외무역 동향

산업용 전기장비에 대한 역외국 제품의 유입확대 현상은 '84-'93년중에 EU의 대역외 수출 평균증가율이 4%에 그쳤으나 EU역외 수입은 무려 9%나 증가한데서도 입증되고 있다.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92년도 EU의 역외 수입은 수출보다 비교적 높아 51백만 ECU에 달했다.

전기공구 분야에 있어서 EU의 무역수지는 '88년 이래로 급감했다. '88-'93년 기간중 EU역외 수입은 수출보다 3배나 증가했으며 스위스(EU최대기업인 BOSCH사계의 소유), 일본, 중국 등이 관련 제품 수입시장의 71%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만한 사항은 독일의 수입이 지난 5년간 연간 15%증가했으며 수출의 경우 4%가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여타 국가, 특히 EU역외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됐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프랑스, 이태리 및 영국의 경우도 EU회원국 중에서는 전기공구 수입규모가 큰 국가들이다.

미국과 EFTA이외에 EU산 용접장비를 수입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중국, 구 동구권 국가, 터키, ASEAN 등이다. '92년 EU역내외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즉 EU 회원국중 최대 수출국은 독일(EU역내 수출의 40%, EU역외 수출의 42%)이며, 그 다음이 이태리 (각각 16%와 20%), 프랑스 (각각 13%와 11%)였다. 수입에 있어서는 '93년도 기준으로 독일이 최대 수입국으로, EU전체수입

의 34%를 독일이 수입했다.

이는 EU역외로부터 수입되는 규모와 비교할 때 거의 대역의 수입의 2/3에 달하는 것이다. 독일에 이어 EU내 주요 수입국들은 영국, 이태리, 네덜란드(용접장비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국), 프랑스 등이다.

## 5. 수요동향

전기공구는 그 수요가 대부분 일반 가정용 소비에 의하여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제품자체는 중간재이거나 투자재로서의 특성을 띠고 있다. 용접장비의 소모품(예, FILLER)은 소모품으로서 사용되지 않고 내구성 투자재나 소비재(자동차, 선박)의 생산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장비의 수요는 수많은 고객의 생산증대에 의하여 결정된다. 투자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내연연소기관, 자동차, 기타 운송수단 및 교통관련 전기 장비로 이 분야에서는 운송장비의 생산 수준과 대체용품의 추세에 의하여 수요가 결정됨.
- 노(爐)와 오븐,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R&D 활동은 물론 제조 공장의 대체 또는 건설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용접장비와 자재, 이 분야에의 수요는 주로 가공산업, 발전, 운송산업(차량, 선박, 항공기 제조포함)의 활동에 의존하며 또한 캔, 철사제품, 철제건설, 파이프관과 같은 광범위한 기타 경제부문의 동향에 의존함.
- 전기공구, 이 분야의 수요는 주로 건설, 금속가공, 목재가공, 기능수준, 소규모 제조, 유지관리 및 DIY활동에 의하여 형성됨.

대부분의 산업용 전기장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수준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90-'93년 기간중의 일반적인 경기 침체현상으로 전기·공구 시장도 극도의 침체현상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용접산업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고객의 수요 감소 현상으로 인해 판매가 급속히 줄어든 바 있다.

용접장비 업계의 위축은 자본투자를 연기한 고객산업(client industry)에 의한 주문 감소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향후 수요에 영향을 줄 주요 요인은 거대 독일 시장이다. 특히 동독지역은 대부분의 기업과 소

비자들이 장비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집중적인 건설, 금속가공, 목재가공 활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기 공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수요 증가에 기여할 지역으로는 이태리와 이베리아 반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이 지역내 건설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 6. 공급 및 경쟁동향

산업용 전기장비 시장의 주요 기업은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전기공구분야와 관련 유럽시장에서는 이들 3대 경제 블록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높은 수준의 표준화를 이루고 있을 뿐만아니라 유통채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데 따른 것이다.

전기공구분야를 제외한 부문에서는 EU 업체들이 외부의 경쟁 기업들로 부터 위협을 덜받고 있다.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문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 산업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EU역의 기업들이 시장접근시 일종의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이러한 상황이 시장 진출시 장애가 되는 이유는 공급선과 고객과의 강력한 협력과 공동 연구 체제가 갖추어져 역외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진입 노력을 전개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데 있다.

### 회원국별 Power Tool의 소비 비중('93)

(단위 : %)

국 가 명	소비 비중	국가명	소비 비중
벨 기 에	3.7	아 일 랜 드	0.5
덴 마 크	1.9	이 태 리	8.7
독 일	48.1	룩셈부르크	0.0
그 리 스	1.3	화 란	5.3
스 페 인	4.9	포 르 투 갈	0.9
프 랑 스	15.1	영 국	9.7

자료 : Bosch

용접장비, 특히 자동차 조립용 장비부문에서는 EU업체 또는 최소한 EU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들은 여타 나라의 생산자들보다도 유리하다. 따라서 EU업체들은 역외기업들의 직수출에 의한 시장잠식 보

다는 EU에 현지 투자진출한 역외 기업들에 의한 시장 공략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공구 부문에 있어서는 비록 EU기업들이 자국의 영토내에서 영업을 하고 유통채널을 장악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BLACK & DECKER사와 같은 기업은 여타 경쟁사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현재 일본 기업들이 광범위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향후 일본기업들이 유통망을 확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 품질, 그리고 기술 혁신을 잘 조화시켜 나갈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유럽, 특히 이테리 기업들은 자국 통화의 역세로 독일과 일본의 경쟁기업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 7. 생산과정

산업용 전기장비 분야와 관련한 대부분의 제품들에 있어서는 원료와 에너지는 생산비용에 있어서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 장비 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R&D) 부문은 제품이 고객 산업의 생산공정이 변화하는데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는 관계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력은 숙련 노동자들이다.

기술변화는 빠르지만 혁명적 또는 혁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진화적인 편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고객산업들이 새롭고,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꺼리는 관계로 레이저 절단, 용접 기술이나 전자빔 용접과 같은 용접부분에서의 주요한 기술 혁신적 제품들의 도입이 저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인증과정상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우주 항공·산업에 있어서의 신기술 도입 등이 좋은 예다. 한편 전기공구 분야에 있어서 미래의 주요한 기술혁신은 전문가 및 DIY부문에 대한 전자기술의 향상과 무선 및 건전지 재충전 기술의 향상이라 할 수 있다.

## 8. 산업구조

### 가. 기업

산업용 전기장비산업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소형업체가 큰 기업에 흡수되는 기업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용접장비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체나 특정 상품으로 전문화된 기업간에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BOSCH, FIAT, ATLAS COPCO등과

같은 기업들과 같이 여러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용접장비 부분에서는 2가지의 부문, 즉 아크 용접과 저항용접이 있다. 아크용접에서는 기계 가격이 비교적 저가이나 필터와 같은 소모재의 비용이 용접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판매는 대개 유통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경쟁업체들은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기업합병의 과정을 통하여 출현했다. ESAB(스웨덴)사는 용접장비 및 소모품 분야에 있어서 세계최대 공급자로 연간 매출액이 '93년 7억 5천만ECU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 가운데 4억ECU가 서유럽에서 판매된 것이다. ESAB사는 종전에는 스웨덴의 Incentive사가 지배했으나 '94년 영국의 CHARTER 그룹에 의하여 흡수되었다. 기타 유럽시장에서 유명한 기업으로는 KEMPI(폴란드), MIGATRONIC(덴마크)등 여러개사가 있다.

저항용접 분야는 더욱 세분화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저항용접 분야에서 손을 떼고 주요 오토메이션 전문회사로 전환하여 현재는 주로 자동차 조립에 사용되는 자동공정분야의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 주요 생산업체로는 컨베이어, 기계취급 장비(mechanical handling equipment)와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용접장비를 공급하는 유럽의 주요 단일 기업인 프랑스의 SCIAKY사를 비롯하여, RENAULT사와 독일의 KUKA사, 영국의 STADCO사, 이태리의 COMAU사 등이 있다.

종업원 150인 이하의 규모가 작은 기업은 표준 용접기계를 제작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독일의 IDEAL사와 ELREX사, DALEX사 등과 프랑스의 PRD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세계적 차원은 아니지만 여러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전기공구산업은 분업화가 덜 되어있다. 이 분야는 비교적 제한된 수의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고 있으나 현재는 각국에서 전문품목이나 주문생산 공업용구에 특화하고 있는 전문생산업체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전기공구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국적, 특정국가 및 지역전문 기업등 3개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다국적 기업에게 있어서 전기공구는 전체 수입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모든 지역의 최종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기업은 세계 여러지역에서 각각 특정 유형의 공구를 생산하고 있다. 유통분야는 직접 자회사를 통하거나 또는 합작기업에 의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에대한 좋은 예는 '89년 휴대용 전기공구 분야에서 10억ECU의 매출을 올려 세계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한 ROSCH(독일)와 '92년 전기공구로 전체 수입의 25%이상을 기록한 BLACK & DECKER(미



국), '92년도 3억ECU이상의 판매고를 낸 독일의 RIOBY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아닌 EU의 국내기업도 광범위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특히 최종 수요자 그룹이나 또는 단일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기업들은 통상 1-2개국내에 여러개의 생산기지를 두고 있으나 생산된 제품을 유통시킬 때는 주력시장의 경우 자회사를 활용하고 비주력시장의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예로는 AEG ELEKTROWERKZEUGE(독일), WICKES(영국) (이 업체는 영국에 60개이상, 프랑스의 베네룩스에 30개이상의 소매점을 가진 생산자라기 보다는 소매업체임), PEUGEOT(불)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업체는 대개 특정생산업자로 생산품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으나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관여하는 대기업이 취급하기에는 지나치게 세분화 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 나. 전략

산업용 전기장비의 수요는 EU 및 세계 경기에 좌우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부문의 기업들은 수요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고도의 자동화와 부품의 외부 조달 및 고용의 유연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EU기업들은 보고 있다.

EU산업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가져다 주는 성공적인 전략에는 네가지 요인 즉, 최종 소비자의 수요확인, 기술혁신, 지리상 유리한 입지로의 생산이전, 상품 차별화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D, 특히 합작에 의한 R&D는 고객 산업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는 물론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을 고객수요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고객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기업합병의 면에서는 CHARTER사가 용접장비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인 ESAB을 합병할 것과는 별도로 치더라도 BLACK & DECKER사는 '94년 매출액이 3억ECU에 달했던 Dynapert, Corbin & Russwin, Minicraft 등 일부 비핵심적인 기업을 처분하였으며, 독일의 림비그공장에서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영국 스펀모어에 생산시설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9. 환경규제

환경문제는 산업용 전기장비의 생산과정상에서는 관심이 낮는데 이는 에너지 소비가 적고 유해 연기나 기타 오염물질의 방출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재활용문제도 원재료에는 재활용 금속 비중이 높으나 생산량이 비교적 적은 규모일 뿐만아니라 고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 아크용접분야에서는 매연이 사용자측에게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는 용접작업시에 사용되는 여러 형태의 전극의 특별 성분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시 되는 위험은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것이다. 관련 장비의 세계적인 공급업체인 NEDERMAN(스웨덴)사는 공기정화 시설이나 필터, 마스크를 사용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 10. 전망

산업용 전기장비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은 국가경제의 일반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일부에서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점과 고객산업으로 부터의 수요증가를 들어 향후 3년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부류도 있다.

즉 일부에서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지난 '93년에 전세계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는 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 자동차 판매는 3년간 약 6% 증가할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관련 부분에(예, 차량용 전기 부품)대한 용접장비 부문의 수요 증가와 연결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운송 및 차량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는 EU의 여러나라 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서 줄곧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요 철도공사계획에 기인한다. EU가 추진한 전유럽철도망(TEN)의 개발이 모든 회원국가에 이와같은 긍정적인 경향을 파급시켜 EU내 용접장비 산업의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산업용 전기장비 산업분야의 여타 장비에 대한 수요는 EU와 세계 경제회복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여타 장비 분야에 대한 전체 유럽시장에서의 성장률은 '93년의 1%미만에서 '94년에는 2%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95-'98년 기간중에는 성장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5-'98년 기간중의 평균성장률은 약3%로 예상되며 생산도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11. 대EU 수출 체크 리스트

산업용 전기장비의 대EU 수출에 있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이분야와 관련하여 적용되고 있는 EU의 상품안전규격 및 이에 따른 인증제도에 대한 EU의 규정 또는 지침이다.

즉 산업용 전기장비의 경우 일부 장비는 전자자기를 발생하고 있어 EU집행위원회가 노동자와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전자파 적합성지침(89/336/EEC)의 적용을 받게되며, 특히 전기 공구는 대부분 일반 안전규정, 특히 기계류에 관한 EU이사회지침(89/392/EEC, 91/386/EEC, 93/44/EEC)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도 폭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대기속에서 사용되는 보호장비 및 시설의 경우에는 1994년 3월에 제정된 EU이사회 지침(94/9/EC)의 적용을 받는다.

**에너지는 우리생명 절약은 우리사명**